

* 해외도서관 사정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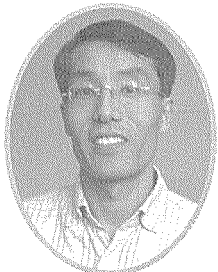
“

변화하는 영국의 공공도서관

”



도서관 이용자 혹은 지역주민들이 셰필드 Frecheville 도서관에서 사서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연말 특별 커피모닝(coffee morning)에 참석하여 열람실에서 커피와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2003년 12월,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김영석*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문화선진국 공공도서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주민과 함께 도서관을 운영하는 점일 것이다. 대도시에서 혹은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이웃을 만나고, 책을 읽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곳이 동네도서관이다.

시의 운영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 시의 행정단위를 최소화한, 인구가 50-100만이 되는 대도시들에도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두지 않으면서 30여개에서 70여개에 이르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나라가 영국이다.

여기서 잠시 영국의 최근 공공도서관 현황을 통계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은 전국의 208개 지방자치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영국의 공공도서관 제도는,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인, 운영 - 지방자치정부 - 과 감독 - 문화부 -이 각각 하나의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CIPFA(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2003)¹⁾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3월 현재 1주일에 10시간 이상 개관하는 도서관은 영국 전역에 3,944개관이 있다. 따라서 영국 208개 시·군·구에는 평균 약 1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인구 약 15,000명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는 셈이다.

도서관직원은 총 25,724명으로 사서 1명이 맡는 봉사인구는 약 2,286명이다. 전체 도서관 장서는 약 1억1천6백만권으로 국민 1인당 1.9권이고 시청각 자료는 약 830만 건이 있다. 영국국민들은 지난 01/02 회계년도²⁾에 1인당 6.4권의 책을 대출하였다. 같은 기간 영국 전체 도서관 예산은 약 1조 4,850억원 (약 825백만 파운드 × 1,800원)이다. 이중 자료 구입비는 전체 예산의 약 6.8%인 2,189억원(121.6백만 파운드)이다.

따라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 많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도서관 전문가들과 지방자치정부는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건립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의 위치를 선정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셰필드는 1900년대 초에 추가로 세 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서관, 공공세탁실, 공중목욕탕 그리고 수영장을 한 건물하에 두었다. 이 방안은 이들 시설들을 함께 묶어둠으로써 도서관 이용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즉 1900년대 초까지 영국의 서민가정에 목욕시설이 없었는데 시민들이 세탁실, 목욕탕 혹은 수영장을 이용할 때 도서관도 자연스럽게 함께 이용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 Sheffield University Library Korea catalogue, y9s9kim@hanmail.net

1) CIPFA(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2003, Public Library Statistics, London : CIPFA

2)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또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공공도서관을 동네 상가지역 혹은 대규모 쇼핑센터에 건립함으로써 쇼핑과 도서관 이용을 함께 하도록 유도하였다. 최근엔 이에 한 걸음 더 나가 도서관과 커피숍을 함께 묶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글래스고(Glasgow)시의 한 도서관은 시내에서 가장 변화한 곳에 새롭게 개관하였는데, 이 도서관에 들어서면 먼저 커피숍이 보이고 그(커피테이블) 옆엔 정기간행물과 일반서가가 있고 더 안쪽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어린이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영국의 공공도서관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또 아래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세필드시에 2004년 3월 1일, 1년여 동안의 보수 공사 후에 새롭게 문을 연 한 도서관은 건강정보서비스센터, 카페, 수영장, 헬스클럽, 유아원과 함께 한 건물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위에서 설명한 1900년대 초에 세필드시에 지어진 3개의 공공도서관중 하나였고 수영장과 함께 약 100년 동안 운영되어온 유일한 도서관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대적인 보수공사 후에,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시설과 함께 운영되게 되었다. 시는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시설들을 한데 묶어 UHLC(Upperthrope Health Living Centre)³⁾라고 부른다. 지역주민들은 위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때 하나의 서비스 데스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영국의 많은 도서관이 그렇듯 위의 'UHLC'에 있는 도서관도 1주일에 27시간 밖에 문을 열지 않는데, 이 도서관은 주말에 보통 시간제(part-time) 사서에 의해서 운영된다. 또 사서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여전히 다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서비스데스크가 열려있는데 도서관 이용자들은 이 시간에 자동 대출·반납기를 이용하여 책을 대출하고 반납한다.

여기에 언급된 예를 제외하고도 영국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하는 도서관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영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도서관 운영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고 이러한 시설들을 자주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윤희윤(2002)⁴⁾의 연구에 의하면 '도서관이 멀어서 이용하지 않는다' 고한 응답이 27.7%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결과는 도서관을 한 시·군·구에 크게 몇 개만 지어 주민들에게 멀리 위치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도서관을 작게 많이 만들어 주민들 가까이 위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

끝으로 필자는 '도서관의 친구' (Friends of the Library) 회원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서관의 열람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한아름 책을 빌려가는 모습 그리고 '도서관의 친구' 그룹이 커피 등을 팔아 모은 기금을 모아 도서관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사서와 상의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Walkley 도서관의 '도서관의 친구' 그룹의 임원과 회원들이 사서와 정기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2004년 2월).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도서관의 친구'는 사서로부터 현재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도서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는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도서관의 친구'와 사서는 도서관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상의한다.

3) <http://www.uhlc.org.uk>, 2004년 3월 29일 방문

4) 윤희윤, (2002),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안", 도서관(불호) 63쪽